

## 전라도 米學 쌀을 다시 본다

▶ 관련기사 3·4·5면



해주 최씨 23대 종부 백정자(72·왼쪽)씨가 19일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종택(宗宅)에서 아들(가운데)과 딸(오른쪽)과 함께 가마솥밥을 소쿠리에 옮겨담고 있다. 가마솥밥을 신기하듯 맛보는 어린이의 해맑은 표정에서 쌀의 미래가 다시 움트기를 기대해 본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생명·정·나눔의 우리민족 聖穀

(성곡·성스러운 곡식)

## 쌀 소중함 알면 세상 절로 좋아져

### 강진 종갓집 며느리 백정자씨의 쌀 이야기

“쌀을 천시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산다고 배웠어. 뜨물만 흘러도 어르신들 성화에 집안이 난리가 났지.” 추석을 앞두고 ‘풍년 걱정’으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19일 강진군 들녘, 누구나 이맘 때면 마음이 풍성해지지만, 폭락하는 쌀가격과 쌓여가는 재고에 시름이 겹친 듯 주민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찾기 힘들었다.

군동면 용소리 700번지, 400년 종택(宗宅)을 지키고 있는 해주(海州) 최문(崔門)의 23대 종부 백정자(72)씨는 들녘으로 눈길을 돌리며 “쌀을 이렇게 천대하는 세상이 을 줄 몰랐다”고 혀를 찼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쌀 재고량은 정부 양곡 39만7877t, 농협 물량 5만9000t 등 45만6000여t 달한다. 공공비축미를 쌓아 놓은 양곡 재고에는 2005년

생산분 5만3000t까지 포함돼 있다. 쌀이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백 할머니와 더불어 동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에게 쌀은 신물(神物)이자 생명의 씨앗이었다. 1960년 23살 새댁시 때부터 지켜온 금과옥조는 “별씨는 물론 쌀을 성곡(聖穀·성스러운 곡식)으로서 여겨야 한다”는 종가의 가르침이었다.

햇곡의 특산물 비이삭을 골라 대문 위에 걸고 이듬해 풍년을 기원했다. 삼신(산모와 아이를 수호하는 신)바가지에 햇곡을 담아 조상신을 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해 16차례 달하는 제사를 모시면서 성주 단지에 따라 보관해온 새 쌀로 밥짓고 제삿상에 올릴 술·떡을 빚었다.

50여년 기억을 더듬던 그는 “지금 쌀시세(80kg 한가마 13만2000원)가 형편 없지만, 시집을 때 쌓아 놓은 양곡 재고에는 2005년

(당시 7000원)와 맞먹었다”고 회상했다. 새경(머슴이 주인에게서 한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도 쌀, 물건을 살 때도 쌀로 썼다. 여름철 ‘맛이 간’ 쌀막걸리를 버리지 않고 소주로 빚어 마셨다.

벼품종도 현재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당시 재래종을 개량한 ‘농립6호’ ‘진흥벼’ ‘내도복성’이 주류였다. 쌀이 모자라 동남아산 풀기없는 ‘안남미(安南米)’도 먹었다.

한해 88번의 손길을 거쳐야 쌀이 되는 시절이었지만, 수확량은 정성에 못미쳤다. 이때 재래종수확량의 1.5배였던 ‘통일벼’가 보급되자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승’했다고 한다.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에 ‘단비’였던 셈이다.

밤풀 하나도 쉬이 보지 않던 시절을 지나온 종부는 한 사람이 한해 고작 쌀 74.0kg밖에 먹지않는 현실을 개탄했다.

시집을 당시 시조부모는 물론 집에서 부리는 사람까지 모두 18명의

한 달 식사량이 100kg을 족히 넘었다. 한 차례 제사 때 밥 짓고 백설기 만드는 데 12kg을 쓸 정도였다. 그러나 80년대 품종개량·기계화 영농 후 사람들이 줄어 80kg짜리 쌀 8가마를 보관하던 뒤풀이 물건창고로 변해 지금은 다섯 식구가 한 달에 채 20kg도 못먹을 정도가 됐다.

나눔의 문화는 쌀에서 싹뚫고 있다고 한다. ‘좀도리’ 문화다. 끼니 때마다 식구 수대로 쌀을 퍼낸 뒤 한손갈씩 향아리에 담아 쌀을 절약했다. 그 쌀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분(分)도 사서 받았다.

그런 세월이 상전벽해(桑田轉海)다. 해주 최씨 종부는 “세월이 변했다”며 먼 하늘을 봤다. 쌀 귀한 줄 모르는 세상, 생명인 쌀을 시세로 썰하는 세상은 ‘아니다’고 했다. 그런 세상물정 모르고 익어가 버를 보려 간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뒷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았다.

일방적인 전락공천이 이뤄질 경우, 10여명이 넘는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 “민주당 대표 손학규 가장 적합”

정동영·정세균·천정배·박주선 順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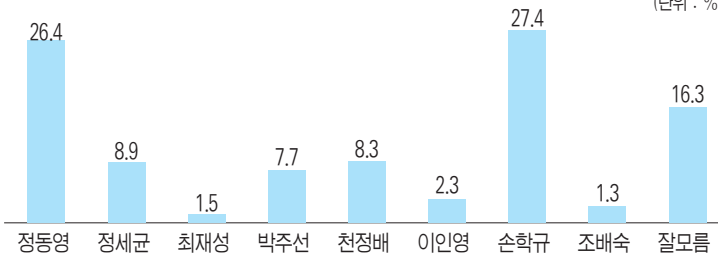
### 광주·전남 1523명 대상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손학규 전 대표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정동영 상임고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0·3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7일 하루 동안 광주·전남지역 19세 이상 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는 8명의 당권 주자 중 손학규 전 대표가 27.4%로 선두를 달렸고, 정동영 고문이 26.4%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P) 내에서 손 전 대표를 뒤 쫓았다. 이어 정세균 전 대표(8.9%), 천정배 의원(8.3%), 박주선 의원(7.7%) 등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3, 4, 5위를 차지, 중우권을 형성했다.

### 민주당 대표 적합도 (후보는 기준순)



민주당 내 486 대표주자인 이인영 전 의원은 2.3%, 최재성 의원은 1.5%, 유일한 여성 후보인 조배숙 의원은 1.3%를 각각 얻어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강 3중 3약’의 구도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16.3%였다.

8명의 당권 후보 중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는 정동영 고문이 36.9%로 선두를 달렸고, 손학규 전 대표가 24.2%로 뒤를 쫓았다. 정세균 전 대표(7.0%)와 천정배 의원(5.8%),

박주선 의원(5.0%) 등 3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3중’을 형성했고, 최재성 의원(2.3%), 이인영 전 의원(2.0%), 조배숙 의원(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층은 15.7%였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재집권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7.8%가 ‘재집권할 것’이라고 답했고, 27.4%는 ‘집권에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민주당의 재집권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 후보 전략공천할 듯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민주당 후보는 전략공천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공심위(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공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예비 후보자들이 난립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일 공심위에서 전략공천 도입을 결정하고 비대위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한 지역 실사를 마친 상황이며 이를 토대로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보다는 ‘컷-오프’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방적인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10여명이 넘는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 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심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컷-오프를 거쳐 3~4명의 후보군을 압축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로 어렵다”며 “공심위에서 전략공천을 결정하면 비대위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행복한 **한가키** 보내세요!

추석특집·TV 9~20면 쏙 읽어보세요!  
21·22·23 일자 신문 읽니다.

20(월)	21(화)	22(수)	23(목)
구름점적천이름 20/31℃	구름맑음 20/28℃	흐리고 비 19/26℃	구름 많음 17/25℃

**자율형 사립고 지정**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선** 제단
- 전교생 수용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보다 폭넓은  **장학금 제도**
- 2009년 교육부 선정 **영어 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보문고등학교**  
입학문의 (062) 940-8800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이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전

- 공통: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션택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해피정회원	10,000	계약금	잔금
		2,000	8,000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